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 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의 신비로움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특출한 정치실력에 있다

국제사회가 터치는 위인칭송의 목소리

비밀한 정치실력과 탁월한 령도예술, 열화같은 인민사랑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위상을 온 세상에 떨치시며 공화국인민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이 국제사회에서 뜨겁게 분출되었다.

그이께서는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기울이시였으며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대결의 기류를 평화의 기류로 바꾸어놓으시었다.

조선의 신비로움은 이 나라를 이끄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조선인민이 지니고있는 강한 정신력에 기인된다.

인민이 바라다면 하늘의 별도 따라야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열사복무정신을 지니신 김정은위원장의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세기적인 기적을 안아올리며 눈부시게 비약할 수 있었다.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정치군사적위력으로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련전 련승하고있다고 하면서 도이철란드신문 《로테 파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국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여

국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여

강력한 자위적국방력 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과 평화의 담보이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령장을 모시어 불패의 국방력을 가진 존엄높은 국가이다.

들을 위임없이 찾으시여 부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방항공군 비행지휘관들의 전투비행술경 대회들과 탱크병경대회, 부대들의 포사격경기를 조직해주시어 인민군대를 그 어떤 강적도 단만에 쳐부실 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었다.

그이께서는 신비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위험천만하고 포연자욱한 시련발사장들에도 나서시였으며 최전연의 감시소에도 오르신것이다.

조국소식

어랑천4호발전소 훌륭히 완공

공화국의 함경북도에서 군민협동작업으로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어랑천4호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하였다.

어랑천상류의 협준한 산악을 꿰지르며 솟구쳐오른 창포연계와 물길굴, 통합전력관리체계가 구축된 발전기실을 갖춘 계단식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대규모 수력발전기지인 어랑천발전소건설을 제기일에 끝낼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과 발전기실을 일떠세워야 하는 건설은 험한 산비탈을 깎아 160여미터의 수송로를 내야 하고 콘크리트타입, 압반차리량만도 수십만㎡나 되는 방대한 공사라 하였다.

건설자들은 10월 중순까지 연계공사를 결속하였다.

인민의 생명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보건의 혜택을 가장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모두가 무병말라고 문명생활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더없는 기쁨으로 된다.

어렵지 않게 바쳐 인민을 위한 병원을 보란듯이, 세상이 부러워하게 훌륭하게 일떠세우자는 것을 열렬히 호소할 때 인민들은 세상에서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는 그의 열화같은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평양산원 유선종합연구소, 육류야동병원, 류점진과병원, 류점진과종합병원, 보건산소공장, 치과외생용품공장...

이 하나하나의 병원들과 의료시설비, 보건기지들에게는 인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제일로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어려웠다.

어디에서 평양종합병원을 인민들에게 설치 최상급의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할 수 있게 세계적수준으로 훌륭히 완공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시급히 대책하기 위한 국가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보건의성 일꾼들과 공무원들이 평양종합병원운영을 위한 준비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양종합병원운영을 위한 준비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사업을 진행하고있다.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령계밀에 평양종합병원의 의학적, 과학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병원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키우기 위한 작전을 빈틈없이 세우고 이 사업을 완강히 내밀고있다.

이와 함께 병원운영에 필요한 의약품과 소모품, 각종설비비를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워 가며 이를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고있다.

성아래 의료기구공장에서 의료설비, 의료기구생산 지표를 바로 선정하고 최상급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생산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으며 병원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용소모품을 비롯한 의료품들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준비를 빠른 기간안에 끝내기 위한 사업도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본성으로, 신성한 정직리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것은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안겨주기 위한 오늘을 마감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보건성 일꾼들과 공무원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 듯 높다.

# 자기 힘으로 발전과 미래를

나라의 진보와 발전, 번영은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는 데서 담보된다. 공화국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와 발전을 이룩하여 나가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자강력에 의거하여 더욱더 강해지고 있으며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강력제일주의의 창조대전을 최우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가고 있다고 하시었다.

전체 인민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부강조국건설의 기치로

높이 들었기에 공화국은 모진 시련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용진하고 있다.

공화국이 발전하여 온 역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 온 려정이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그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이다.

자강력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남의 덕으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강화하는 것이 자강력이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키우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만리도 지척이 된다.

자강력이야말로 창조의 보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공화국인민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서 생활의 진리로 체득하였다.

자강력을 체질함으로써 공화국인민들은 력사가 알지 못하는 장기적인 가혹한 환경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허리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떨치겠다는 신념의 강자가 될 수 있었다.

오늘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소동을 정면 돌파전,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무력화시키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발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의 위대한 사상을 기리기 위하여 진행된 대규모 집회 모습

## 매혹과 흠모

### 한없이 소랄하신분

세계 각국의 많은 인사들 속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에 대한 찬양은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우간다 전국학생운동기판지 《파블리코 렌즈》가 전한 소식이 이목을 끌었다.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계정치무대에서 대단히 매력적이며 인기있는 정치가로 세인의 각광을 받고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첫째가는 매력은 강과 유를 조화롭게 결합하신것이다. 최근 몇년간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보여주신 자세와 결단된 국제사회에 매우 강한 지도자로 알려지신 그의 기질을 증시해준다. 그러나 김정은최고령도자는 강하신것만큼 매우 부드럽고 인문분이다. 리민들의 인사도 허리굴러 받아주시고 미소속에 그들과 귀속담도 하시는 등 인민들을 대하시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친절하고 소랄하다. 평범한 사람들의 집을 찾으시어는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생활적인 이야기도 나누시며 아이들에게 그림그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습은 국가지도자이시라기 보다는 한집안의 가장과 같은 느낌을 준다. 철 모르는 아이들의 청도 무릅없이 받아주시며 그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사진을 찍으시는 위인의 영상은 인상적이다. 이런 분을 조선 인민은 령도자로 우러르며 진실로 존경하고있다. ...》

경애하는 원수님은 공화국 인민들이 우러러 따르며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국가의 최고령도자이시고 세계 수

많은 인사들로부터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계시는 걸출한 위인이시지만 틀을 차리지나 격식에 매이지 않아 매우 소박하고 소랄하신분이다. 인민을 찾아 끊임없이 가고가시는 그의 현지도의 길에는 언제나 수수한 평민의 모습으로 인민들과 가장 친근하게 어울리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빛나고있다.

주제 101(2012)년 5월 1일 로동자들의 문화후생기지로 번듯하게 일떠선 강성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2층에 꾸러진 리발실에도 들리시었다.

평양에 올라가서 전승을 받고왔다는 리발사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이께서는 그러면 나도 공장들에 다니다가 여기에 와서 리발을 해도 일없겠는가고 허물없이 물으시었다.

뜻밖의 물음에 너성리 리발사들은 당황하여 그 누구도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누가 머리를 깎아주겠는가고 다시금 물으시는 그의 소랄한 풍모에 끌린 리발사들은 그제서야 꿈에서 깨어난듯 이번에는 제가 리발을 헤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며 지마끔 앞에 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 동무들에게 머리 깎는것을 맡겨볼가라고 말씀하시자 봉사자들은 저도 모르게 환성을 올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이께서 승백대기로 나서는 너성리리발사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후날 한번 꼭 시간을 내서 머리깎으러 오겠다고 하시자 순간에 구면이 되신듯 한 그의 이 말씀에 리발실에는 한가정, 한식술의 정이 한껏 넘쳐났다.

또 언제인가 어느 한 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집을 찾으시어는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생활적인 이야기도 나누시며 아이들에게 그림그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습은 국가지도자이시라기 보다는 한집안의 가장과 같은 느낌을 준다. 김영일

를 비롯한 농기계들, 지하전동차, 제도전차, 무궤도전차들 그리고 평양양말공장의 제품들과 사리원방직공장에서 생산되는 날염천들과 사뜨천들, 평성합성가죽공장과 원산구두공장, 평양화장품공장과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질높은 제품들을 비롯하여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이 자기 힘이 제일이고 자기의 것이 제일이라는것을 때부로 절감케 하고있다.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시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만든 신발들을 보니 정말 힘이 나고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강력제일주의를 전략적으로 내세우신 그의 정도의 현명성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었다.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훌륭히 변모된 삼지연시와 새로 조업한 대규모의 중평남새농장농장과 양묘장 그리고 최근에 완공된 순천리비료공장과 대규모관개체계인 황해남도물길도 자력자강의 위력이 낳은 재부이고 창조물들이다.

몇해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있지만 시련속에서 자기의 힘을 백배로 비축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강대한 나라를

자강력제일주의의 고귀한 산물

지금으로부터 네해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시었다.

기업소에서는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는 아크릴계칠감생산을 위한 공정을 자체로 구축하고 도입시험에서 단번성공하였으며 민용성이 담보된 질품은 칠감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고귀한 산물이라고 하시며 그 누구도 우리가 잘살고 강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라고, 자기 힘을 믿고 달려붙으면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고,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고 남의 힘을 믿으면 지척도 만리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이라고 하시며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화학공업의 주체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세해전 10월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들이 우리를 어찌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면 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자립경제의 구조를 완비하고 그 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로 되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자력갱생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우리는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오직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며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리 설

## 친근한 부름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따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따라 애국충정을 다하는 불굴의 정신력과 기상도 그의 애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매혹에 원천을 두고있는 것이다.

우리 원수님.

이 부름과 함께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할 정신적기둥이 세워졌고 절대적으로 따르며 받드는 열화같은 신리의 세계가 간직되어있다.

그 어떤 강요나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들 스스로가 최고령도자를 우러러 《우리 원수님》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다.

친근한 이 부름은 령도에서 으뜸이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에서 그 끝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인민의 매혹에서 울려나오고있다.

본사기자 황금 숙

##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는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증가혁명과 과학농사, 새망

수 없고 가을레아 가를수 없는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혈연의 정이 슬베어있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한결 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시었다.

그때로부터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이 더욱 깊어졌다.

우리 원수님.

누구나 이 부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어 새 힘을 얻군 한다.

자식들이 기쁜 일이 생겨도 피로움이 있어도 먼저 어머니를 찾듯이 인민은 기쁨 때도 힘겨울 때도 언제나

고 하시면서 몸소 이룩시켜 주신 《평양》호와 단백질이 많다는 의미에서 명명해 주신 《단백초》들은 농업 발전에 기술이신 그의 심혈과 로고를 뜨겁게 전해주고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느 한 시험장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벼이삭이 여문 논밭을 바라보시며 지으신 환한신 미소를 잊지 못하고있다.

그이의 모습을 떠올릴수록 더욱 강렬해지는것이 환경생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려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찬양은 그리움이다.

인민들에게 환할때 고 기국을 기억하시려 생애의 마지막 날에도 농장길을 걸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이시고 총자 혁명방침과 갑자농사혁명



재령군 봉천협동농장에서 새로 건설된 금야근자연흐름식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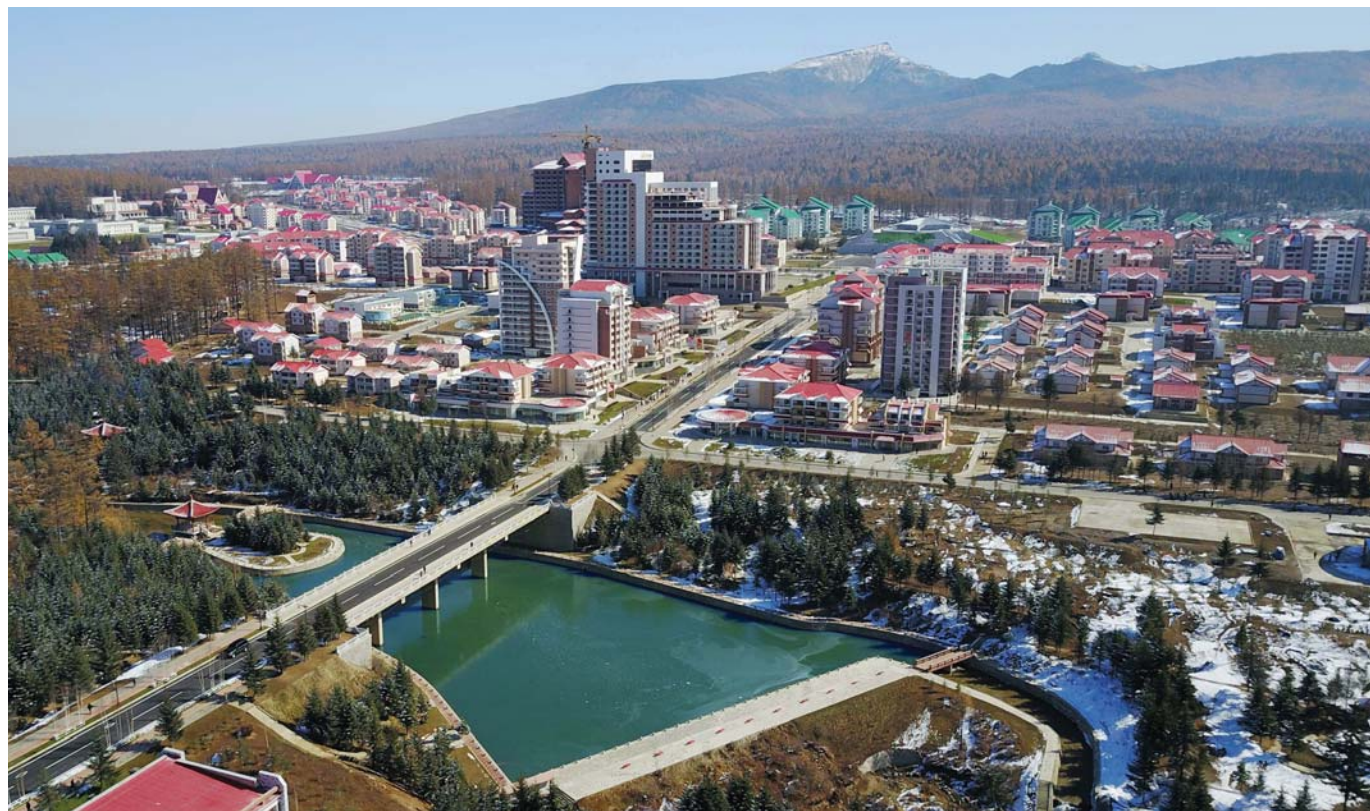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집을 찾으시어는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생활적인 이야기도 나누시며 아이들에게 그림그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습은 국가지도자이시라기 보다는 한집안의 가장과 같은 느낌을 준다. 김영일





자력갱생을 변형의 보검으로 들어쥐고

# 백두대지에 펼쳐진 전변의 새 모습



지난해 12월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리상도시 삼지연군(당시) 읍지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제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과 혁명할 정도로 의하여 천지개벽된 삼지연시는 민족성과 현대성, 북부고산지대의 특성이 훌륭히 결합되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모든 건축물들의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사회주의명명의 축대로 되고있다.

백두산지구는 한해중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려 시설물을 하나 일떠세우자고 해도 쉽지 않다.

그런데 백두산아래 첫 동네인 이곳에 천지개벽의 새 모습이 펼쳐졌다. 원래 하나의 군이었던것이 거대한 산간도시로 전변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백두대지에 펼쳐진 눈부신 전변, 이것은 결코 하늘이 준 기적도, 세월이 가져다준 천지조화도 아니다.

그것은 삼지연땅을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울려 퍼지고 로동당시대의 문명을 대표하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꾸러갈 드높은 신념을 안고 펼쳐나간 건설자들과 온 나라 인민의 불같은 애국충정, 무궁무진한 자력갱생위력이 안아온 대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삼지연시구리기는 수백정도의 넓은 부지에 4000여세대의 소중, 다층살림집들과

## 화학공업발전의 새로운 활로

### 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데 대한 강령적인 지침을 받아안은 화학공업부문 일군들의 심정이 남다르라고 본다.

기자: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데 대한 강령적인 지침을 받아안은 화학공업부문 일군들의 심정이 남다르라고 본다.

## — 리일수 화학공업성 국장과의 대담 —

공화국에서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특별히 큰 힘을 쏟고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의견들이 철회되고 화학공업발전의 새 활로를 열어놓기 위한 문제들이 진지하게 협의되었으며 해당결정서가 채택되었다.

경제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화학공업부문이 먼저 들고일어나야 한다.

화학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그 어떤 외적요인에도 무관하게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이룩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에서는 화학공업의 구조를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화학공업을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울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혁명적인 대책이 취해졌다.

경제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화학공업부문이 먼저 들고일어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화학공업발전 반을 추켜세우기 위한 당면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마진 기사는 리일수 화학공업성 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리일수: 화학공업은 공업의 기초이고 인민경제의 주라격전선이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화학공업부문이 먼저 들고일어나야 한다.

화학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그 어떤 외적요인에도 무관하게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이룩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에서는 화학공업의 구조를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화학공업을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울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혁명적인 대책이 취해졌다.

경제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화학공업부문이 먼저 들고일어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화학공업발전 반을 추켜세우기 위한 당면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마진 기사는 리일수 화학공업성 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리일수: 화학공업부문에서 자력갱생, 자력변형의 창조물인 순천린비료공장을 일떠세워 정면돌파전의 첫 승전포성을 울린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련속공격전을 과감히 전개해가고있다.

우선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여 화학공업의 근간을 새롭게 세우고 그 전망을 열어놓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쏟고있다.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에 참가한 기술자, 로동자들은 화학공업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는 기쁨, 밀천을 마린하는 무겁고도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다. 자각을 안고 대상과제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남흥과 홍남을 비롯한 화학공업기지들에서는 비료생산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남흥청년화합련합기업소의 능력확장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고 홍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도 능력확장공사를 다그쳐나가고있다.

그리고 자체의 원료에 의한 카리비로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고있다.

현존화학공장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활성화하며 절약형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홍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영양액비료생산공정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으며 2.8비료련합기업소에서 가정소다생산능력을 높이기



## 우리 문화, 우리 예술

# 천연탄산광천수—강서약수

평양을 비롯한 곳곳마다 약수운반용자동차들이 뒤따라 달리고있다.

이로부터 그 맛과 약효가 비할바없이 뛰어나 조건의 특산이라 부르는 강서약수를 싣고 달리는 차들이다.

강서약수공정에서는 새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팔팔 솟아나는 약수를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고있다.

약산성인 강서약수는 위분비정상화, 장관의 운동, 흡수촉진, 리담, 리노, 대사촉진, 조절작용이 있는것으로 하여 만성위염, 위 및 십이지장염, 위수술유류증, 만성소대장염, 동맥경화증, 비만증, 당뇨병 등의 치료에서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

강서약수는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인정된 보기 드문 천연탄산광천수인것으로 하여 1982년에 천연기념물 국가지정 제56호로 등록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명 특중서와 품질인증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 등록되었다.

기념물 국가지정 제56호로 등록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명 특중서와 품질인증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 등록되었다.



# 더욱 황홀해진 지하철도역

경양의 4.25문화회관이 마주보이는 지하철도 전구역이 올해에 들어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다.

현대적미가 내게 개진된 지상역사와 어울리게 내부 또한 지하철전역을 방불케 하고있다.

얼마전 우리가 전구역안에 들어서니 오각별을 형상한 대형천정조명이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사진작품들로 장식한 계단과 미려과학자거리, 련명거리의 황홀경 등을 보여주는 사진작품들을 보면서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속에 복받은 삶을 누리게 됐어

가쁜 근로자들의 모습, 배우의 꿈과 희망을 쫓아다니는 학생소년들의 행복찬 모습을 볼수 있었고 로라스케트라람, 승마바람이 안겨주는 쾌감을 느낄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화려하게 장식된 지하철도의 기둥벽면들의 사진들에서도 행복에 넘친 인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유원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거나 새집들이하는 근로자들의 모습, 무상치료의 혜택을 무병장수를 누려가는 모습,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련수를 펼쳐가는 모습 등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체도의 고마움을 깊이 새겨주었다.

역사세부와 외부의 전 구간이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는 공화국의 기상,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가는 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는 전구역. 화려하게 단장한 전역을 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말한다.

《전구역이 볼라보게 달라졌다. 대대손손 물려줄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우리의 지하철도가 나날이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는 공화국의 기상,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가는 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는 전구역. 화려하게 단장한 전역을 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말한다.》

《전구역이 볼라보게 달라졌다. 대대손손 물려줄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우리의 지하철도가 나날이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는 공화국의 기상,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가는 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는 전구역. 화려하게 단장한 전역을 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말한다.》



경양의 4.25문화회관이 마주보이는 지하철도 전구역이 올해에 들어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다.

